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¹⁾

이혜수* · 정옥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the Adolescent's Offensive Character

Lee, Hye Su* · Chung, Ock Bo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the adolescents' offensive charact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0 adolescents from 5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was assessed by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developed by Grych and his colleagues(1992). The Adolescents' offensive character was assessed by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by Buss and Durkee(1957). For data analyses, t-tests, one-way ANOVAs, Scheffé Tests for pairwise comparison, pearson's correlations were used. In testing all hypotheses, .05 was used as a significant level in this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dolescents' offensive character. That is, the way the adolescents saw marital conflict often resulted in the adolescents' offensive character.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공격성(offensive character)

1) 교신저자 : Chung Ock Boon, Korea University, 5-1 Anam-dong, seongbuk-gu, Seoul, Korea
Tel : 02-3290-2324 Fax : 02-3290-2324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는 인간 삶의 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고 작은 문제에도 상처를 받기 쉽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과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환경은 청소년이 불안한 시기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아를 확립하며, 더 큰 사회로 나아 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간의 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1997년도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상담건수 중 12.1%가 가정문제로 성에 대한 상담건수(1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국 시, 도별 상담 건수로도 부부갈등과 관련된 가정 문제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문화관광부, 1998). 이러한 사실들로 비추어 보아, 부모간의 갈등은 부부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Emery, 1982)고 본다.

최근까지의 문헌조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자들은 부부관계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Davis & Cummings, 1994; Emery, 1982; Grych & Fincham, 1990). 자녀가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대처반응을 초래하여 부적응적인 심리적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서로의 대립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 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Davi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이러한 부모간의 갈등은 그 강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른데, 부모간의 강도가 높은

언어적, 육체적 형태의 갈등은 낮은 강도의 갈등에 비하여 아동에게 공격성, 괴잉행동, 비행과 같은 행동장애나 정서장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Fantuzzo et al., 1991), Graybill(1985)과 Haskett (1990)은 폭력을 동반한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의 자녀들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크다고 했다. 즉, 부부갈등은 빈도, 강도, 해결정도 등 부부갈등에서 동반되는 하위요인에 따라 자녀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빈도, 강도 해결정도는 자녀의 외현성 문제와 관계가 있으며, 부모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자녀의 내면성 문제와 관계가 있다(Fincham, Grych & Osborne, 1994)고 한다.

또한 부부갈등을 인식한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는 학령기 초기나 중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지만 학령기 말과 사춘기에는 성별에 따라 비슷한 정도의 행동문제를 보이는가 하면(Hetherington et al., 1982), 사춘기 이전까지는 남아가 심리적인 문제에 더 취약하나 사춘기부터는 여아보다 여아가 더 취약하다는 결과(Werner, 1989)도 보고되었다. 이렇게 부부갈등은 그 상황을 목격한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시켜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갈등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간접적 행동결과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갈등관계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와의 빈약한 대화, 잦은 분노 감정 표출, 드문 애정표현, 잦은 약속 불이행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아동의 경우, 이 때 아동이 부모들로부터 느끼게 되는 정서적 거부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아동을 향해 드러난 적대감의 표시는 아동의 공격성, 비행과 관련이 높고 아동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유형의 정서적 거부는 불안, 위축 등의 내면성 문제와 관계가 있다(Pettit & Bates, 1989). 그러나 노치영(1988)은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부정적 심리상태로 아동에게 부정적 행동을 가해서 아동이 공격적이 되는 것보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목격해서 나타나는 공격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즉,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과 부모 간 폭력을 관찰하는 것은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부모 간 폭력을 관찰하는 것이 아동의 공격성과 더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부갈등은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르며, 자녀의 성별로 보았을 때 청소년기 자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부부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부모간의 폭력을 자녀가 관찰할수록 부정적 정서 중 공격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의 최근의 동향은 대부분 부부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아동 스스로 보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권영옥, 1998; 김소향, 1994; 변영인, 1994; 우진영, 1998). 이렇게 자녀 스스로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것은 부부갈등을 부모가 보고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이는 부부갈등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차원을 좀 더 면밀히 알 수 있으며,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심리적, 행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게 하므로 나아가서 예방의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의 초점을 연구 대상에 맞출 경우, 청소년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에 가정에서의 안정감과 화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청소년의 발달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녀가 아동일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빈도, 내용, 강도, 해결정도,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등과 같은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부부갈등이 가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견해보며,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서 부부간, 부모간의 화목한 가정환경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관련 변인(자녀의 성별, 자녀의 출생순위, 경제적 배경,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부모의 음주 여부)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차이가 있는가?

2. 관련 변인(자녀의 성별, 자녀의 출생순위, 경제적 배경,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부

모의 음주 여부)에 따라 자녀의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4개구(강남구, 성북구, 노원구, 종로구)에 소재한 5개 중학교 2학년 10개 학급의 남녀 학생 34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중 남학생이 182명으로 53.7%, 여학생이 157명으로 46.3%이었으며, 가정의 경제상태는 상층이 19명으로 5.7%, 중상층이 116명으로 34.9%, 중중층이 161명으로 48.5%, 중하층이 27명으로 8.1%, 하층이 9명으로 2.7%를 차지하였다. 출생 순위는 맏이가 137명으로 40.8%, 막내가 131명으로 39.0%, 중간형제가 36명으로 10.7%, 외동이가 32명으로 9.5%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267명으로 86.4%를 나타내었고, 어머니의 연령 역시 40대가 263명으로 84.3%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공무원이 149명, 즉 47.9%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54.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241명, 즉 72.4%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172명, 고졸이 134명으로 각각 52.1%와 40.6%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주량은 '1주일에 1-2번 마신다'가 111명, 33.5%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주량은 '전혀 안 마신다'가 100명, 31.0%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들은 청소년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

발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고 이를 다시 류승희(2000)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CPIC는 하위척도가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여부,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안전성의 9가지로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자녀가 각각의 차원에 대해 직접 평가하도록 고안된 척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타당화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류승희(2000)가 이를 재사용한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의 8개 하위척도 44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상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도록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류승희(2000)가 보고한 8개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59이상의 결과를 나타내어, 하위척도의 각 문항들이 공통된 차원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3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공격성

공격성 검사는 Buss 와 Durkee(1957)가 제작한 BDHI(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4명의 심리학자로부터 BDHI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문항수정을 받아 노안녕(1983)이 번안하고 신지원(1997)이 진위형으로 되어 있는 문항들을 5점 Likert척도로 바꾸어 사용한 척도를 채택하였다. BDHI는 원래 공격성의 정도를 재는 5가지 하위척도와 적의성을 재는 2가지 하위척도, 죄의식을 측정하는 총 8가지 공격성 하위척도의 7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죄의식과 적의성 척도를 제외한 5가지 공격성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48문항을 채택하였다. 하위척도로는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성이 있으며,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가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질문지의 문항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성북구의 1개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미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현이 부적절 하거나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내 강남구 2개교, 성북구 1개교, 노원구 1개교, 종로구 1개교의 5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들이 5개의 중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각 중학교 교무부장과 가정교과담당 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어 질문지를 한 학교당 2학급씩 50부를 배부하였으며, 가정교과담당 교사의 지도로 교실에서 학생들이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가정교과담당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이유는 본 연구가 가정교과의 인간발달 및 가족분야와 연계성이 있기에 가정교과담당 교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에 동참해 줄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작성된 질문지는 가정교과담당 교사가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고, 2-3일 후에 본 연구자가 가정교과담당 교사로부터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350부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10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340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질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의 차이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해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F값을 산출하였고, F값이 유의할 경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사를 실시하였다. 단, 두 개의 집단만으로 구성된 관련 변인인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유무 분석은 t-검정을 통하여 평균과 t값을 산출하였다.

관련 변인 중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의 주량에 따라 자녀의 부부갈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은 자기비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하여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 2>에서 살펴보면, 출생순위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은 부부갈등 하위요인인 강도(p<.05)와 대처 효율성(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강도에서 중간형제가 맏이보다 부부갈등의 강도를 더욱 높게 지각하였고 대처 효율성에서 맏이, 중간형제, 막내에 비해 외동이가 대처효율성을 낮게 지각하였다.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은 전체로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상층보다 하층의 경제상태에 있는 학생이 부부갈등 지각 전체에서 더욱 높게 지각하였다. 부부갈등 하위

<표 1>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의 변량분석

성별	집단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 비난		상관관계		전체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남자		14.84(4.97)		17.44(6.05)		13.46(5.01)		9.19(3.34)		15.17(5.39)		16.82(4.84)		12.49(3.68)		9.35(3.19)		107.12(24.92)		
여자		15.26(4.82)	-0.78	17.56(6.22)	-0.18	13.83(4.37)	-0.70	8.64(3.07)	1.53	15.47(5.80)	-0.48	17.11(4.48)	-0.56	11.58(3.68)	2.20*	8.84(3.03)	1.51	106.24(25.81)	-0.80	

* p <.05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2> 출생순위, 경제상태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의 변량분석

출생순위	집단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출생순위	첫째	14.43(4.88)			16.34(5.73)		A	13.01(4.49)			9.19(3.57)			15.15(5.52)		
	중간형제	16.46(4.91)			19.65(6.79)		B	15.12(5.23)			8.23(2.50)			15.09(6.28)		
	막내	15.20(4.82)	1.74		17.72(5.92)	3.31*	AB	13.77(4.74)	1.99		8.92(3.21)	0.92		15.61(5.43)	0.22	
	독자	15.31(5.16)			18.83(7.17)		AB	13.97(4.72)			8.63(2.50)			14.87(6.13)		
가정의 경제상태	상층	13.22(6.16)		A	16.17(7.12)		A	13.56(5.28)		A	7.72(3.12)			14.32(6.97)		
	중상층	14.78(5.10)		AB	16.56(6.33)		A	12.92(4.56)		A	8.96(3.29)			14.85(5.67)		
	중중층	14.80(4.68)	3.58**	AB	17.70(5.85)	3.03*	AB	13.18(4.37)	8.78**	A	8.94(3.34)	1.21		15.37(5.36)	1.94	
	중하층	17.85(4.17)		B	20.50(5.72)		B	18.19(4.86)		B	9.44(2.50)			18.04(5.47)		
	하층	17.56(2.96)		B	21.33(3.04)		B	16.44(3.91)		AB	10.38(1.77)			16.14(3.89)		

* p <.05 ** p <.01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3〉 부모의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의 변량분석

	집단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험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어머니 직업	무직	15.08(4.80)	0.35		17.54(5.97)	0.38		13.56(4.66)	0.43		9.11(3.66)	0.84		15.19(5.86)	1.27	
	단순노동직	16.50(3.34)			19.44(4.45)			14.80(4.16)			8.00(3.43)			18.60(4.33)		
	서비스직	15.36(5.31)			17.29(6.60)			14.05(4.72)			8.24(1.90)			15.05(6.11)		
	자영업자/공무원	15.07(4.90)			17.45(6.31)			12.84(4.19)			9.28(2.33)			16.41(5.59)		
	회사원/공무원	14.66(5.22)			16.60(6.76)			13.20(4.89)			8.69(2.98)			15.46(5.55)		
경영/전문직	14.29(5.60)	17.60(7.27)	14.00(5.24)	8.00(2.88)	13.70(3.88)											
아버지 직업	무직	16.50(6.19)	1.14		20.71(4.50)	0.77		16.25(5.99)	2.12		9.75(1.39)	0.84		17.38(6.23)	1.76	
	단순노동직	17.56(5.34)			19.00(4.90)			17.44(5.27)			8.67(5.00)			15.14(8.88)		
	서비스직	16.80(4.42)			17.75(4.68)			14.73(4.78)			8.91(2.55)			18.00(7.27)		
	자영업자/공무원	15.09(5.35)			17.95(6.59)			13.03(4.92)			9.43(3.16)			16.42(5.88)		
	회사원/공무원	14.81(4.76)			16.92(5.95)			13.31(4.48)			8.80(3.42)			14.59(5.29)		
경영/전문직	14.33(5.04)	17.19(7.06)	13.59(4.75)	8.35(2.85)	14.93(5.18)											
		대처 효율성			자기 비난			삼각관계			전체					
	집단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어머니 직업	무직	17.16(4.77)	1.43		11.92(3.83)	1.01		8.89(3.12)	0.50		106.54(27.62)	0.25		114.91(18.42)		
	단순노동직	19.50(3.47)			13.40(5.10)			8.50(2.64)			106.32(24.09)					
	서비스직	16.05(4.95)			12.95(3.06)			9.73(3.31)			106.21(21.24)					
	자영업자/공무원	17.48(4.34)			12.81(3.21)			9.44(2.72)			106.88(25.16)					
	회사원/공무원	15.94(4.37)			11.60(3.89)			9.27(3.03)			103.09(24.57)					
경영/전문직	16.68(4.70)	11.58(3.44)	9.05(3.77)													
아버지 직업	무직	18.38(4.03)	2.46*	AB	12.86(3.49)	1.66		9.75(3.50)	1.67		121.82(35.20)	1.62		115.21(24.94)		
	단순노동직	21.11(4.59)			A			11.22(2.73)			6.78(1.86)			117.04(22.91)		
	서비스직	17.20(4.80)			AB			12.82(3.66)			9.30(3.27)			110.88(24.63)		
	자영업자/공무원	17.71(4.57)			AB			13.02(3.19)			9.63(2.97)			103.78(25.32)		
	회사원/공무원	16.65(4.70)			AB			11.72(4.20)			8.86(3.14)			102.39(25.71)		
경영/전문직	16.10(4.64)	B	11.43(3.08)	8.84(3.19)												

* p < .05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의 변량분석

	집단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험		대처 효율성		자기 비난		삼각관계		전체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어머니 직업 유무	무	15.08(4.80)	0.23	17.54(5.97)	0.36	13.56(4.66)	0.13	9.11(3.66)	1.35	15.19(5.86)	-0.63	17.16(4.77)	0.87	11.92(3.83)	-0.69	8.89(3.12)	-1.11	106.52(27.61)	-0.06
	유	14.94(5.07)		17.26(6.53)		13.49(4.69)		8.61(2.72)		15.60(5.40)		16.69(4.51)		12.23(3.67)		9.29(3.06)		106.73(23.29)	

요인으로 살펴보면, 빈도(p<.01), 강도(p<.05), 해결(p<.01), 대처 효율성(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하층으로 갈수록 빈도와 강도를 높게 지각했고, 대처효율성은 중하층에서 높게 지각하였다.

부모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 중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부부갈등 지각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을 살펴보면, 대처효율성(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아버지가 경영/전문직에 종사하는 학생보다 대처 효율성을 높게 지각하였

다. 자세한 내용은 〈표 3〉-〈표 4〉와 같다.

반면, 〈표 5〉에서와 같이 부모의 학력에 따른 부부갈등의 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주량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주량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은 부부갈등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으며,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주량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 또한 전체 부부갈등에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으며,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해결(p<.05), 내용(p<.05), 삼각관계(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표 5〉 부모의 학력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의 변량분석

	집단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험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어머니 학력	무학력	18.00(1.41)			21.75(3.59)			17.50(0.58)			11.00(1.41)			16.25(2.50)		
	초졸	17.50(3.55)	1.56		21.14(3.44)	1.55		15.63(5.32)	1.42		10.75(4.30)	1.27		15.63(6.28)	0.52	
	중졸	16.42(6.30)			19.00(6.86)			14.58(5.39)			8.25(2.83)			16.73(6.45)		
	고졸	15.15(4.57)			17.51(5.81)			13.61(4.52)			8.76(3.01)			15.50(5.83)		
	대졸이상	14.54(5.07)			16.98(6.37)			13.26(4.75)			8.87(3.37)			14.83(5.31)		
아버지 학력	무학력	18.00(1.73)	2.04		20.00(1.00)	1.15		17.67(0.58)	1.30		11.33(1.53)	1.81		15.33(2.08)	1.56	
	초졸	15.33(1.53)			20.33(3.79)			15.33(2.08)			13.00(6.25)			11.67(5.13)		
	중졸	17.71(3.95)			20.33(4.63)			16.14(5.05)			9.43(1.40)			18.43(5.56)		
	고졸	15.97(4.90)			18.21(6.19)			13.74(5.05)			8.69(2.71)			16.20(6.51)		
	대졸이상	14.58(4.92)			17.01(6.20)			13.39(4.63)			8.86(3.35)			14.96(5.26)		
		대처 효율성			자기 비난			삼각관계			전체					
	집단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어머니 학력	무학력	17.75(0.50)	1.40		15.25(0.50)	1.07		9.75(1.26)	0.79		127.30(4.50)	0.25		118.91(19.51)		
	초졸	17.38(4.14)			12.50(2.73)			10.25(3.24)			111.09(35.72)					
	중졸	17.70(5.95)			12.55(3.78)			10.17(3.83)			111.09(35.72)					
	고졸	17.63(4.58)			11.71(3.64)			8.92(3.02)			106.93(25.13)					
	대졸이상	16.37(4.71)			12.08(3.84)			9.01(3.16)			103.84(25.13)					
아버지 학력	무학력	17.67(0.58)	0.95		15.00(0.00)	0.92		10.33(0.58)	1.93		125.31(2.89)	1.34		112.70(5.69)		
	초졸	16.67(2.08)			13.00(0.00)			7.33(1.16)			112.70(5.69)					
	중졸	19.83(5.95)			13.71(3.77)			11.86(2.61)			123.38(15.26)					
	고졸	17.47(4.45)			11.99(3.29)			9.21(3.31)			108.51(26.69)					
	대졸이상	16.72(4.80)			11.97(3.85)			8.95(3.03)			104.62(25.17)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부모보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부부갈등을 더욱 높게 지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2.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해서 공격성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F값을 산출

〈표 6〉 부모의 주량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의 변량분석

	집단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험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어머니 주량	전혀 안마시	14.40(4.69)	1.45		16.54(6.20)	1.66		13.11(4.71)	2.47*		8.96(3.49)	3.17*		AB	1.31			
	1년에 1~2번	14.52(4.91)			17.58(5.73)			13.80(4.28)			A			9.18(3.05)			AB	15.53(5.00)
	1달에 1~2번	15.22(5.14)			17.30(6.58)			13.33(4.45)			A			8.14(3.07)			A	14.81(5.51)
	1주일에 1~2번	15.69(4.82)			18.94(5.96)			13.78(6.05)			A			9.64(3.41)			AB	16.63(5.61)
	거의 매일 마시	18.00(3.16)			21.14(2.19)			18.71(3.15)			B			11.71(1.38)			B	17.14(3.13)
아버지 주량	전혀 안마시	14.00(4.62)	2.56*		A	2.17		13.09(4.84)	1.58		8.56(3.54)	0.59		15.08(6.28)	0.44			
	1년에 1~2번	13.69(4.30)			A			16.40(5.99)			13.76(3.48)			8.50(3.12)			15.13(5.25)	
	1달에 1~2번	14.79(4.99)			AB			17.12(6.01)			13.02(4.24)			9.31(3.36)			15.72(5.42)	
	1주일에 1~2번	15.14(4.74)			AB			17.24(6.03)			13.55(5.18)			8.87(3.08)			14.79(5.36)	
	거의 매일 마시	16.68(5.50)			B			19.75(6.43)			15.14(5.28)			8.94(3.26)			15.83(6.40)	
		대처 효율성			자기 비난			삼각관계			전체							
	집단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어머니 주량	전혀 안마시	16.11(5.08)	1.14		12.08(3.97)	1.53		8.24(2.83)	2.82*		A	2.59*		102.22(26.40)				
	1년에 1~2번	16.95(4.26)			12.17(3.54)			9.53(3.25)			B			108.16(23.14)			AB	
	1달에 1~2번	17.10(4.19)			11.54(3.72)			9.12(3.12)			B			103.90(25.22)			AB	
	1주일에 1~2번	17.87(5.49)			12.10(3.50)			9.33(3.30)			B			114.88(27.91)			AB	
	거의 매일 마시	17.17(1.17)			15.00(2.65)			10.71(1.60)			B			128.18(12.73)			B	

아버지 주량	전혀 안마심	16.85(5.30)	0.76			11.40(3.71)	1.73			8.21(2.88)	1.36			96.85(26.42)	2.36*	A
	1년에 1~2번	16.53(4.03)				11.79(3.47)				9.13(3.20)				102.61(20.71)		AB
	1달에 1~2번	16.63(4.45)				12.92(3.74)				9.02(3.12)				108.82(26.10)		AB
	1주일에 1~2번	16.83(5.13)				11.83(3.59)				9.08(2.85)				104.93(25.10)		AB
거의 매일 마심	18.02(4.01)	11.64(3.97)	9.70(3.10)	115.04(25.92)	B											

* p < .05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7〉 성별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의 변량분석

	집단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전체	
		평균(SD)	t값	평균(SD)	t값	scheffé	평균(SD)	t값	평균(SD)	t값	scheffé	평균(SD)	t값	평균(SD)	t값
성별	남자	30.55(6.32)	-0.11	27.08(5.55)	-3.96**		15.73(2.90)	-0.68	32.78(6.14)	-0.89		40.85(5.97)	0.26	147.31(21.12)	-0.80
	여자	30.63(6.08)		29.57(5.69)			15.95(2.94)		33.34(5.21)			40.67(6.17)		149.30(19.48)	

** p < .01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8〉 출생순위,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의 변량분석

	집단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전체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scheffé
출생 순위	첫째	30.78(5.90)	0.09		28.13(5.79)	0.21		15.99(2.96)	0.88		33.24(6.08)	0.21		40.64(6.48)	1.04		148.90(20.88)	0.20	
	중간형	30.44(6.45)			28.97(6.51)			15.09(3.02)			32.52(4.64)			40.09(6.61)			146.74(21.72)		
	계	30.39(5.99)			28.25(5.58)			15.84(2.82)			32.87(5.61)			40.66(5.18)			147.36(18.72)		
	막내	30.48(8.12)			28.00(5.72)			15.97(3.04)			33.37(5.98)			42.59(6.83)			149.82(24.70)		
가정 경제 상태	상층	27.06(5.15)	2.26	2.97*	A	15.47(3.22)	0.66	3.28*	A	38.35(6.69)	1.18	3.19*	A	132.17(18.40)					
	중상층	30.36(6.71)			28.36(5.61)	AB			15.74(3.05)	33.01(5.70)			B	41.41(6.00)	147.52(20.71)				
	중중층	30.55(5.99)			28.19(5.93)	AB			15.98(2.84)	33.17(5.79)			B	40.33(5.96)	148.81(20.39)				
	중하층	32.54(4.58)			30.68(3.83)	B			16.26(3.01)	34.42(3.49)			B	41.08(5.27)	155.39(14.42)				
	하층	33.00(2.94)			29.20(2.86)	AB			14.57(1.99)	36.00(5.10)			B	40.80(8.11)	152.30(22.01)				

* p < .05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하였고, Scheffé 검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단, 두 개의 집단만으로 구성된 관련 변인인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유무 분석은 t-검정을 통하여 평균과 t 값을 산출하였다.

관련 변인 중 가정의 경제상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성별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은 공격성 하위요인 중 간접적 공격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 8〉에서와 같이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은 공격성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경제상태가 상층에 있는 학생보다 중하층에 있는 학생의 공격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 하위요인 중 간접적 공격성(p<.05)과 홍분성(p<.05)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즉, 간접적 공격성은 중하층이 가장 높았으며, 홍분성은 하층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표 10〉에서와 같이 부모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표 1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에서 공격성 하위요인 중 간접적 공격성은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여기서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자녀가 가장 공격성을 높게 지각했으나, 그 뒤를 이어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녀가 공격성을 두 번째로 높게 지각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본다.

부모의 주량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이 아버지의 주량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에서

는 유의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주량에 따라 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자녀의 공격성에서는 간접적 공격성(p<.05)이 유 는 가정의 자녀의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의 변량분석

	집단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전체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어머니 직업	무직	30.24(6.12)	0.34	28.33(5.75)	1.24	15.76(2.93)	0.35	33.06(5.94)	1.25	40.80(6.13)	0.62	148.21(21.14)	0.64
	단순노동직	31.56(5.73)		29.22(6.80)		16.56(3.43)		30.44(5.70)		39.22(8.30)		147.04(26.09)	
	서비스직	29.89(5.89)		27.25(5.67)		15.63(2.75)		31.76(4.11)		39.95(5.77)		143.47(15.23)	
	자영상공인	31.38(6.92)		29.83(5.34)		16.16(2.68)		33.94(5.72)		40.30(4.24)		151.09(16.10)	
	회사원/공무원	30.43(5.72)		27.15(6.47)		16.02(3.17)		32.37(6.26)		41.08(6.55)		146.51(22.52)	
경영/전문직	31.30(7.12)	29.70(4.77)	16.33(3.10)	34.90(4.58)	42.65(6.23)	154.61(18.24)							
아버지 직업	무직	31.00(4.24)	0.48	28.85(5.58)	0.59	14.71(0.49)	0.36	35.43(3.80)	0.78	39.86(5.79)	0.19	149.91(13.31)	0.23
	단순노동직	33.13(5.52)		27.88(5.44)		16.63(2.26)		32.78(5.07)		40.38(5.40)		148.52(21.62)	
	서비스직	31.46(5.32)		29.91(8.50)		16.00(3.23)		31.46(4.59)		40.18(5.42)		149.04(22.73)	
	자영상공인	30.86(6.48)		28.91(5.18)		15.74(2.92)		33.87(5.98)		40.49(5.34)		150.81(20.40)	
	회사원/공무원	30.33(5.91)		27.81(6.08)		15.94(3.05)		32.69(5.77)		41.16(6.46)		147.18(20.22)	
경영/전문직	30.06(6.82)	28.76(5.64)	15.94(3.00)	33.16(5.78)	40.89(6.18)	149.03(21.76)							

<표 10>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의 변량분석

	집단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전체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평균(SD)	t값
어머니 직업유무	무	30.24(6.12)	-0.76	28.33(5.75)	0.03	15.76(2.93)	-0.94	33.06(5.94)	0.26	40.80(6.13)	-0.06	148.12(21.11)	-0.10
	유	30.79(6.20)		28.30(5.95)		16.08(2.98)		32.88(5.64)		40.85(6.04)		148.43(19.88)	

<표 11>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의 변량분석

	집단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전체	
		평균(SD)	F값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어머니 학력	무학력	32.33(2.32)	0.86	26.33(1.16)	3.29*	AB	16.00(5.57)	0.88	32.33(2.08)	0.18	37.00(2.65)	1.93	144.03(6.00)	0.52
	초졸	34.00(3.50)		33.29(4.82)		A	14.25(3.85)		33.00(3.63)		42.57(3.10)		156.86(12.41)	
	중졸	30.30(4.95)		26.80(3.91)		AB	15.67(2.55)		32.60(3.60)		38.78(4.92)		142.19(16.10)	
	고졸	30.81(5.81)		29.14(5.70)		A	15.66(2.78)		33.33(5.29)		39.87(5.65)		148.49(18.52)	
	대졸이상	30.21(6.70)		27.41(5.86)		B	16.02(2.94)		32.79(6.28)		41.48(6.50)		147.62(22.63)	
아버지 학력	무학력	31.00(1.41)	0.63	27.00(0.00)	0.93		13.00(2.83)	0.71	33.50(0.71)	1.05	36.50(3.54)	0.99	141.04(4.24)	0.41
	초졸	34.00(1.00)		31.00(4.24)			16.00(4.58)		33.67(4.51)		40.00(2.83)		155.03(8.49)	
	중졸	32.00(2.89)		27.67(5.72)			16.86(3.02)		33.29(4.27)		38.71(3.04)		149.02(14.11)	
	고졸	31.13(6.07)		29.31(5.84)			15.74(2.83)		34.17(5.38)		40.00(6.14)		150.71(19.48)	
	대졸이상	30.25(6.35)		27.98(5.64)			15.85(2.93)		32.65(5.74)		41.16(6.07)		147.52(20.87)	

* p <.05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12> 부모의 주량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의 변량분석

	집단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전체	
		평균(SD)	F값	평균(SD)	F값	scheffé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어머니 주량	전혀 안마심	29.55(6.22)	1.23	27.44(6.33)	2.76*	A	15.77(3.02)	0.69	32.32(7.16)	0.78	39.67(7.04)	1.06	144.21(24.52)	1.15
	1년에 1~2번	30.49(5.57)		28.48(5.11)		AB	16.05(2.68)		33.21(4.78)		40.78(4.99)		148.73(16.38)	
	1달에 1~2번	30.83(6.49)		27.83(5.61)		AB	16.03(3.08)		32.72(5.06)		41.17(6.14)		148.90(19.53)	
	1주일에 1~2번	32.05(7.44)		30.64(5.96)		B	15.74(2.96)		34.16(5.36)		41.74(5.84)		152.36(21.62)	
	거의 매일 마심	31.60(2.97)		32.20(5.26)		AB	14.17(3.06)		33.20(3.70)		41.40(5.60)		152.41(15.70)	
아버지 주량	전혀 안마심	30.36(6.07)	1.07	28.32(5.39)	2.07		15.35(2.93)	0.59	33.15(5.65)	0.29	40.13(6.85)	0.62	145.30(22.70)	0.80
	1년에 1~2번	28.95(6.79)		26.69(4.94)			16.03(2.54)		32.10(6.52)		40.66(5.51)		143.92(22.21)	
	1달에 1~2번	30.14(5.01)		27.95(5.80)			16.06(2.38)		33.08(5.61)		40.31(5.47)		147.51(18.18)	
	1주일에 1~2번	31.10(6.85)		28.23(5.79)			15.95(3.23)		33.05(5.57)		41.49(6.35)		149.92(20.76)	
	거의 매일 마심	31.20(6.07)		30.17(6.37)			15.57(3.35)		33.33(5.79)		40.40(6.32)		150.47(20.52)	

* p <.05

AB: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3.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녀의 공격성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지각의 하위 요인과 청소년의 공격성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전체는 흥분성($r=.15, p<.05$), 공격성 전체($r=.14, p<.05$), 간접적 공격성($r=.13, p<.05$)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로 공격성향을 강하게 표출하였으며,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하위 요인 중 빈도와 가장 강한 상관을 갖는 청소년 공격성 요인은 간접적 공격성($r=.22, p<.001$), 흥분성($r=.21, p<.001$), 공격성 전체($r=.21, p<.01$), 폭행($r=.14, p<.05$)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할수록 이들의 공격성향이 두드러지며, 이중 공격성 표현에 있어서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혹은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갈등의 강도에서는 공격성 전체($r=.15, p<.05$), 폭행($r=.15, p<.05$), 흥분성($r=.13, p<.05$), 간접적 공격성($r=.12, p<.05$)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겨질수록 이들의 공격성향이 두드러지며, 공격성 표현에 있어서 육체적 폭력이나 험담,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갈등 중 해결은 공격성 전체($r=.17, p<.01$), 흥분성($r=.16, p<.01$), 폭행($r=.14, p<.05$), 간접적 공격성($r=.12, p<.05$)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부갈등 상황을 목격한 자녀가 부부갈등이 잘 해결 되지 않는다고 여길수록 육체적 폭력이나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 주는 행동,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갈등 중 내용은 흥분성($r=.17, p<.01$), 공격성 전체($r=.13, p<.05$), 간접적 공격성($r=.13, p<.05$)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록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 주는 행동,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지각된 위협은 간접적 공격성($r=.22, p<.001$), 공격성 전체($r=.18, p<.01$), 흥분성($r=.14, p<.05$) 순으로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녀가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두려움이 많을수록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처 효율성은 흥분성($r=.25, p<.001$), 공격성 전체($r=.20, p<.01$), 간접적 공격성($r=.12, p<.05$)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로 공격성향을 강하게 표출하였으며,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성향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자기비난과 삼각관계는 각각 흥분성($r=.13, p<.05$), ($r=.12, p<.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탓이라고 지각하는 자녀와 부부갈등 상황의 부모 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많이 느끼는 자녀가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청소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인 15세 남녀 청소년 34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 공격성을 살펴보고 부부갈등 지각 정도와 공격성과의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부부갈등 지각의 하위 변인들과 공격성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 공격성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공격성 전체
빈도	.14*	.22***	.06	.21***	.04	.21**
강도	.15*	.12*	.08	.13*	.03	.15*
해결	.14*	.13*	.04	.16**	.08	.17**
내용	.07	.13*	.03	.17**	.05	.13*
지각된 위협	.10	.22***	.07	.14*	.04	.18**
대처 효율성	.09	.12*	.10	.25***	.05	.20**
자기 비난	-.14	.02	-.09	.13*	-.08	.03
삼각 관계	.03	.10	.02	.12*	.06	.12
부부갈등 전체	.10	.13*	.09	.15*	-.03	.14*

* p < .05 ** p < .01 *** p < .001

1.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서는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자기비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의 원인을 자신의 탓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는 박수영(199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지만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권영옥(199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부부갈등의 하위 요인 중 강도와 대처효율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형제가 강도를 높게 지각하였고, 이에 반해 맏이는 강도를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대처 효율성에서는 외동이가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중간형제가 부부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다른 형제집단보다도 더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형제 중 중간형제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 한다. 이는 맏이는 첫아이라 믿음직스러워 하며 막내는 막내라 사랑을 독차지 하지만 중간형제는 그들의 틈에 끼어 부모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라 추측된다. 사랑이 부족한 만큼 중간형제는 부정적 환경의 노출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부부갈등에 대해 다른 형제보다 심각도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대처 효율성에서는 외동이가 다른 형제 집단보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외동이가 대처 효율성을 가장 낮게 지각한 것은 형제가 없다는 외동이의 특성 때문에 부모의 독자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갈등 상황에서도 자신만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정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 중 빈도, 강도, 해결, 대처효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빈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상태가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다고 지각하였고,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이 부부갈등 해결과 대처효율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중하층 자녀가 부부갈등의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더 높게 지각하고, 부부갈등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언쟁, 폭력 행동이 많았다는 김갑숙(1991)과 가정의 수입정도가 부부간의 갈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조영란(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직업은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중 대처효율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가 대처효율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아버지가 경영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는 대처효율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보다 부부갈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부모

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는 원지영(199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주량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주량이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빈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주량 또한 해결, 내용, 삼각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부모가 전혀 술을 드시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였다. 즉, 아버지가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가정의 자녀가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머니 또한 술을 매일 마시는 가정의 자녀가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며, 부부갈등 상황의 부모 사이에서 곤란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는 류승희(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음주의 빈도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음주로 인한 늦은 귀가, 음주에 따른 잠재된 심리적 압박의 표출로 인하여 부부갈등의 빈도가 잦아지고 이로 인한 자녀의 부부갈등 지각 정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관련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공격성은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공격성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간접적 공격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간접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악의 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과 같은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겉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기보다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을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정의 경제상태는 공격성 전체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격성 하위요인 중에서 간접적 공격성과 흥분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우선 가정의 경제상태와 간접적 공격성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상태가 중하층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가 간접적 공격성이 가장 높았으며, 상층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가 간접적 공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흥분성 또한 하층에서 가장 높게, 상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 때 공격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상태와 공격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관념이 정립되고 지나친 물질적인 욕구에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가정의 경제상태는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 조건으로 상승시키려는 욕구가 강한 청소년이 이러한 욕구가 억제 되었을 때 공격적 행위로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표출하려는 성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효정(1991)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격성과의 비교 연구에서 유아의 공격성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공격성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공격성은 자녀의 간접적 공격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자녀가 가장 공격성을 높게 지각한 반면.. 그 뒤를 이어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녀가 공격성을 두 번째로 높게 지각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주량에 따른 공격성을 살펴볼 때 아버지의 주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주량은 자녀의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어머니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집단보다 어머니가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집단에서 간접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음주량이 많을 때 자녀가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유추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음주문화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가장장적인 유교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로 보았을 때, 어머니의 음주문화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머니의 잦은 음주는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에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 쪽이 더 크게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음주횟수가 잦은 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잦은 음주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불안을 간접적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으리라 본다.

3.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 하위 요인 중 부부갈등의 빈도는 청소년의 전체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 하위요인으로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폭행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Cummings 등(1981)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부간의 분노 상황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자녀가 덜 노출되는 자녀보다 더 격하게 반응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녀가 부모의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할수록 이들의 공격성향이 두드러지며, 이중 공격성 표현에 있어서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혹은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강도 또한 전체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 중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겨질수록 이들의 공격성향이 두드러지며, 공격성 표현에 있어서 육체적 폭력이나 험담,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umming 등(1981)이 부부갈등은 적대감이나 신체적 공격을 포함한 경우 자녀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해결에 관한 항목에서는 공격성 전체, 공격성 하위 요인 중 폭행, 흥분성, 간접적 공격성 순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부갈등 상황을 목격한 자녀가 부부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길수록 육체적 폭력이나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 주는 행동,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목격한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 Simpson & Wilson, 1993). 본 연구 결과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부부갈등에서 자녀의 부부갈등 해결여부에 관한 지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재확인 할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중 내용에 관한 항목에서 또

한 전체 공격성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격성 하위요인으로는 흥분성, 간접적 공격성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록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 주는 행동,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적 행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부부갈등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지각하는 자녀가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이에 따른 내적 압박감을 표출하는 한 수단으로 공격성향을 나타낸다고 본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하위요인인 지각된 위협에서 또한 전체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격성 하위요인에서는 간접적 공격성과 흥분성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녀가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두려움이 많을수록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고 적은은 부부갈등의 강도나 횟수와도 관계가 있겠으나, 자녀가 강도나 횟수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은 자녀는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범위가 클 것으로 보며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자녀의 공격성은 폭행이나 언어적 공격성과 같이 직접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의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부부갈등 하위요인인 대처효율성과 공격성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공격성 하위요인 중 흥분성이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 간접적 공격성이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녀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지각하면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갈등에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자녀는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Davies & Curmmings, 1994; 구아영, 2000 재인용)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로 공격성향을 강하게 표출하였으며,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성향이 나타

난 것을 의미한다. 자기비난과 삼각관계는 전체 공격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공격성 하위요인인 흥분성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싸우면 더 화가나고 창피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한 김소향(1994)의 연구결과와 부부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므로써 두 사람의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가족의 정서체계를 더욱 혼란시키게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Bowen, 1976)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탓이라고 지각하는 자녀와 부부갈등 상황의 부모 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많이 느끼는 자녀가 쉽게 화를 내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공격성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부부갈등의 빈도, 대처효율성, 지각된 위협 순으로 공격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공격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신이 부부갈등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부갈등상황에서 두려움이 클수록 공격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빈번한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을 높이며, 자녀 자신이 부모의 부부갈등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거나,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의 두려움이 크면 내재된 억압이 공격성으로 표출된다는 것이기에 부부갈등 상황 속에 있는 청소년의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전체적인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흥분성, 간접적 공격성, 전체적인 청소년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은 전반적인 가정불화보다 자녀의 적응상 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며(Emery & O'Leary, 1984; Johnson & O'Leary, 1987; Porter & O'Leary, 1980), Johnston 등(1987)과 Holden 과 Ritchie(1991)는 적응장애 중 특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부갈등 전체는 자녀의 공격성 중 흥분성, 간접적 공격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갈등상황을 목격한 자녀가 공격성을 표출할 때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잠재적 공격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부갈등 상황이 청소년기 자녀

에게 노출되고 이를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들의 직, 간접적인 공격성향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시킨다. 어느 가정이나 부부 간에는 자라온 문화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부부의 특성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부갈등은 부부갈등 그 자체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의 방향과 표출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부갈등의 강약과 빈도, 내용과 해결여부 등 여러 요소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공격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부부갈등은 그 발생여부의 진위를 논하기보다, 부부갈등 표출 방법상의 문제와 자녀에게 어떻게 부부갈등을 인식시키는가를 모색할 때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는 부부갈등상황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갈등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근거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부 지역의 소수의 표본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근거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발달상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성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성년기 또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 시기여서 가정에서의 안정감을 필요로 하며, 부부갈등에 관한 자녀의 지각 또한 이 시기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년기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부부갈등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지각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심도 있는 가족연구를 위해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공격성향에 관한 관계

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부모 자신이 부부갈등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 정도를 지각하는 것은 심각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예측하며 더 나아가 부부갈등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부모를 이해하고 가족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가족관계 분야의 청소년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에게 가족문제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정립을 위한 가정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고취시키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구아영(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이에 대한 부모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영옥(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IPC)의 타당화 연구. 아동복지학회지, 18(1), 65-80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 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류승희(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 백서.
 박수영(1998). 아동의 부모 간 갈등지각과 대처행동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영인(199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 태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원(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공격성향 및 도덕적 판단능력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진영(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지영(1998).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란(1993).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ner Press.
 Buss, A. H. & Durkee, A.(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3-349.
 Cummings, E. M., Simpson, K. S., & Wilson, A.(1993).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about resolu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78-985.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2.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Emery, R. E.(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Emery, R. E., & O'Leary, K. D.(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Martino, T., Anderson, G., & Sutton, S.(1990).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 258-265.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raybill, D. et al.(1985).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who were abused as were abused as childr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6), 152-168.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skett, M. E.(1990).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 109-118.
- Hetherington E. C., Cox M.,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parents and children. In: Nontraditional families, Lamb M., ed. Hillsdale, N. J: Erlbaum, 223
- Holden, G. W., & Richie, K. L.,(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237.
- Johnson, P. L., & O'Leary, K. D.(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73-581.
- Pettit, G. S., & Bates, J. E.(1989)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rom infancy to 4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13-420.
- Porter, B., & O'Leary, K. D.(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Werner, E. E.(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계에 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5개교의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류승희(2000)가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청소년의 공격성 척도는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BDHI(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신지원(1997)이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자료 분석은 t-test, one-way ANOVA, Scheffé 검증을 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유의도는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관련 변인 중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의 주량에 따라 자녀의 부부갈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낮은 집단이 부부갈등 빈도, 강도, 해결, 대처효율성, 전체 부부갈등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의 주량이 많은 집단이 빈도, 전체 부부갈등 지각이, 어머니의 주량이 많은 집단이 해결, 내용, 삼각관계, 전체 부부갈등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관련 변인 중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이 간접적 공격성과 흥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자녀가 지각한 전체적인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흥분성, 전체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순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